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동지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백성(진)중에 있는 죄 I (여호수아 7:1~8:29)

이종윤 원로목사

대승한 부대와 대패한 부대의 차이는 한 순간에 환희와 절망으로 갈린다. 갈멜 산상에서 기도하므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는 영적 거인처럼 보였다. 그러나 호렙 산에 엎드려 하나님께 불평이나 하고 로템나무 밑에서 죽기를 소원한 엘리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같은 경우는 여호수아에게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하면 항상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리고 가나안 정벌의 대영웅 만으로 생각한다. 여리고에서의 승전은 청사에 빛나는 대승임에는 틀림없다. 그것은 6장에 있다. 그러나 7장 1 - 5절에서는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 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만다. 이곳은 여호수아서를 읽는 중 유일한 패전의 이야기다.

### I.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은 패했는가?

대승한 직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 1. 이스라엘의 자만(self-confidence) 때문에

아이 성은 여리고보다 작은 성이다. 작은 성에 모든 백성이 갈 필요가 없다. 2 -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하다. 그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지 자기들의 군사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 2. 기도가 없었기(lack of prayer) 때문에

특히 여호수아는 아이 성 전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부하들의 충고만 듣고 아이 성을 함락하려고 했었고 결국은 그것이 패인이 되었다.

#### 3. 이스라엘 진중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수7:10 - 12)

하나님은 항상 죄를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실패한 주원인은 죄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II. 죄의 성장과 발견

우리는 본문에서 아간이 어떻게 죄를 짓기 시작했는지, 그 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볼 수 있다.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군인 중 한 사람이었다. 참전용사인 그가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는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전멸하라는 것이었다. 금, 은, 동, 철은 정복의 첫 열매로서 여호와와의 곳간으로 거두어들이고 (수6:24) 그 밖의 모든 것은 불사르고 백성은 죽이라고 했다.

아간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여호수아 앞에 고백한 대로 전리품을 도적질했다. 시날 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정도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욕이 생겨 도적질하여 그것을 자기 장막 가운데 땅 밑에 감추었다. 그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행했다. 즉 죄를 의지적으로 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아간의 이 작은 것들에 대한 탐욕 때문에 민족, 국가가 크게 심판을 받았다.

무엇이 아간으로 하여금 이같은 죄를 짓게 했나?

#### 1.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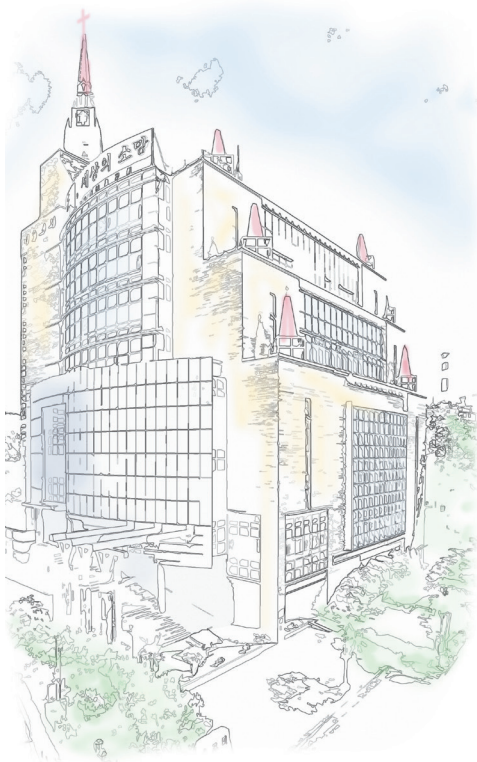
새 땅에 입성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아간도 부와 기회를 찾고 있었다. 자기 땅, 자기 집, 포도원과 무화과나무를 소유할 수 있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그들의 모든 꿈을 짓밟았다는 것이다. 40년 간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 한 푼 할 수 없었다. 이제 수많은 전리품을 보고 그는 이런 기회마저 박탈하시는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도적질이라도 하겠다는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이다. 아간의 불평은 죄를 낳고 그 죄가 불순종을 불러온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께 반항할 때 그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자기 위치에 대해 불만을 가졌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단은 피조물이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뿔뿔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사 14:12 - 14).

불만, 불평은 사단의 죄의 뿌리다. 자기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곧 죄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한 피조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가져 하나님처럼 되라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터뜨리고 교만, 불신, 반역의 죄를 짓고 말았다.

이것은 오늘 나 자신의 경우와는 다른 이야기인가?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3:13 - 14)고 했다. 이런 인생관을 갖고 사는 이는 불만, 불평이 아닌 감사만 있을 것이다.



# 2018 홍해작전 승전 1일 앞으로

## 6월 25일(월)을 승전의 날로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가와 교회, 개개인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기 위해 6월 6일(수)새벽을 깨우며 "교회 소생과 부흥 Church Revitalization & Revival"을 주제로 시작한 홍해작전이 이제 마지막 승전을 앞두고 있다.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인 지난 주는 서창원 목사를 특별강사로 오전 5시에 모임에도 1층 로비까지

지 보조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린다.

이제 내일 25일(월)은 종전예배로 드리며 새벽 5시, 강사는 이종윤 원로목사가 담당한다. 이제 마지막을 앞둔 서울교회 성도들 모두 홍해를 가르고 승전하기를 바란다.

## 2018 하계 농어촌전도대 모집

### 2018년 7월 15일(주)~19일(목) 강원도 고성 대진중앙교회

교회는 혼란한 상황에도 전도를 멈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18 하계 농어촌전도대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전도대원을 모집한다.

농어촌 전도 일시는 2018년 7월 15일(주)부터 19일(목)까지이며 장소는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대진중앙교회이다. 국내 전도에서 활동할 내용은 대진중앙교회의 성경학교, 지역민을 대상으로하

는 의료선교, 이·미용, 전도, 전도대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사 봉사 등이다. 전도기간이 짧고 고온에 힘들지라도 주님의 대사명이며 우리 서울 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만민에게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하는 성도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7월 8일(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

##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오치열 장로(전도위원회 위원장)

지난 당회에서 2018농어촌전도대 파송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어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전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외부 교회에 전도 도움을 할 때냐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을 강조하시고, 우리교회는 이웃교회를 간단없이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더욱 전도에 힘쓰는 우리를 돌아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농어촌전도대 파송식이 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회복하여 시행합니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의 후원을 요청합니다. 일정은 2018년 7월 15일 주일 아침에 의료선교팀이 먼저 출발하여 19일(목)까지 4

박5일 일정으로 시행됩니다.

장소는 강원도 고성군 대진중앙교회로 갈 예정입니다. 금년이 4년차로 우리의 도움으로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뿌려놓은 것을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역은 의료선교, 축호전도, 이미용선교,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지역주민과 봉사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만나팀 그리고 지원팀으로 구성합니다. 이러한 사역은 전도위원회만의 사역이 아니라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기타 전교회적인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전히 자원하는 봉사자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혼란의 한 가운데에 영적전쟁을 치루고 있는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께 이런 요청을 드려서 심히 송구스럽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 지극하신 하나님 사랑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신천지 OUT!**

우리교회는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REVELATION]**  
매주 찬양예배 시

이종윤  
서울교회 원로목사

##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동건/신소영 백도환 최유희 차영도/정미연  
이승래/김정희 정복순 최종금 광선자 정성우/박지혜  
손명근 최규초/노순례 황병석/김영숙 박광훈 신항범  
신용건 유성택/권진순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홍해작전 5행시 모집

홍해작전 본부는 2018 홍해작전 일환으로 홍해작전 4행시, 소생과 부흥 5행시, Church Revitalization & Revival의 약자 S.C.R.A.R 5행시를 모집한다.

제출기한은 6월 24일(주일) 오전 12시까지이며 제출처는 홍해작전 특별행사 응모함에 넣어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윤명구 집사(010-5247-9036)

## 2018년 6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6월 17일 주일 찬양예배 시 2018년 두번째 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해 짝수달(격월) 3째주 주일 저녁찬양 예배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 위원회 세례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입교/ 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입교/유아세례 예식 참여자 명단

- 입교자 : 송민주, 최의연, 장하늘, 유동일 계 4명
  - 유아세례자 : 김연준, 유서아, 이린하 계 3명
- 총 7명





### 6.18(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롬 6:1-7)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앙을 지닌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재차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언제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많을수록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숙고함으로써 문제들을 차분하게 풀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

다. 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 지극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인간들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아들 예수의 몸에 짊어지게 하였고, 예수는 우리들의 모든 죄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잔을 들이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성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세례는 출애굽의 대 역사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례가 가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이러한 세례를 받은 자임이 분명합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4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더 이상 육체의 길, 사망의 길, 죄의 길, 악인이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온갖 탐심이 나를 사로잡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는 새 생명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6.19(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고후 5:14-19)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말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대 선언을 합니다.

1. 성도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결국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차별하는 의식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특권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신분의 고하나 지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얼마든지 대우도 다르고 행동반경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이기

에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냈다’(빌 3:9)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2. 성도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자이다.

사도 바울이 화목을 강조하는 이유는 화목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막중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할 때 ‘우리’라는 일인칭 복수 대명사는 문자적으로는 복음을 맡은 교회 지도자들을 뜻하지만 실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마 5:9)라고 하였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사

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육체대로 알고 육체대로 판단하고 육체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언제나 분열과 다툼과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하게 된 성도는 반드시 화목케 하는 직책수행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 무익한 자들, 무가치한 자들일지라도 우리가 다 무익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조건없이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율법준행자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6.20(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시 38:15-2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딤후 3:12). 왕으로 기름 부름을 받고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던 다윗처럼 시련이 많았던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처지는 일생을 전쟁터에서 보내는 것이었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의 심한 견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오른쪽을 보아도 아는 자가 없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없으므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심한 떨시와 조소가 우리 영혼에 넘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얼마나 가리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놓은 울무 때문에 힘겨워하고, 거짓과 악의적인 일들로 인하여 기가 막히는 좌절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원수 갚는 일을 직접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의 때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15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500년 전 종교개혁의 기치만이 아니라 영원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유다와 아마사사 예돔과 전쟁을 하기로 하고 자신들의 군사력만으로 모자라서 북쪽 이스라엘의 용병 십만명을 백 달란트라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전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마사사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용병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은 오래 참음과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확신이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덕목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자기 백성들을 위경에서 능히 건져주십니다(시 107:20).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여호와와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 허숙 권사(편집부)

**6.21(목) : 고난의 이유 (시 107:10-14)**

우리는 분명 빛의 자녀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까? 왜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성도들이 겪은 시련과 아픔은 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과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국교회가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시편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대로 수고와 슬픔 중에서 죽어야 하는가? 아니면 소생과 회복을 받아 사는 길을 갈 것인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는 길을

가야 합니다.

고난은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고난 중에 진심어린 기도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18세기 위대한 설교자 조지 헛필드는 웨슬레와 심각한 신학적 갈등으로 인하여 결국은 자신이 이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우리가 온유하며 잠잠하도록 하자 오 우리가 다 잠잠히 기다리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논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도록 하자 이것이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잠잠히 모든 일을 그분께 맡겨도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잠잠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

금도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가 있는지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능력을 주시어 감당케 하십니다. 또한 피할 길도 내어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그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능히 구원의 은총을 우리 품에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배울 것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을 꾀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히 5:8-10). 하나님의 뜻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6.22(금) : 끝까지 생존하는 법 (신 4:1-4)**

40년의 광야생활은 이스라엘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때론 물이 없어서, 때론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당하며 숭한 역경을 헤치고 요단강 목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심각한 상황들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최종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것은 한 마디로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 여정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먹거리도, 마실 물도 넉넉지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 불화살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여기에서 실리를 먼저 챙기는 약삭빠른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곰 마냥 우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길고 고달픈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대열에서 이탈했습니다. 남아 있는 자들 중에서도 갈팡질팡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이기가 막힌 수렁에서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들을 능히 건져주실 것이며, 그 즐거운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딤후 4:3-4). 그런 세상이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는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진리의 일군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먹고자 하는 편식주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그 내용이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말씀이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일점 일획이라고 가감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주의 말씀에 붙어 떠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6.23(토) :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 107:23-30)**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여정을 바다에서 항해하는 자들로 묘사하며 강한 바람과 폭풍우와 맞서서 씨름해야 할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1. 여호와와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본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만유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가운데 두신 인간의 행위를 몹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시며 돌아보십니다. 거센 파도와 강한 바람을 볼 때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풍랑도 거센 파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잔잔케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거센 풍랑,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듯한 고통과 죽음의 위협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비록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게 하려 하

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에도 고통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후 1:9). 고난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지혜나 힘이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2.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신으로만 되는 것임을 절감하는 자들, 우리의 범죄함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아는 자들이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

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이 즐거움이 우리 앞에서 곧 펼쳐질 것입니다. 언제 풍랑이 거세게 몰아쳤는지 다 망각할 정도로 평온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일편단심의 각오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하게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악을 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들의 교만함을 꺾고 온유하신 그리스도,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1-3).



# 박노철 목사, 2018년부터 서울교회 위임(담임)목사 지위 상실 - 2017년 안식년이었으나 10월에 재시무투표 받지 않아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4 1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17가합522735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으로 피고 박 에 대하여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 및 예비적으로 피고 박 에 대하여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는 피고 박 이 2018. 1. 1.부터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 박 은 2018. 1. 1.부터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는 피고 박 을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고 박 이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안식년 제도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설교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 은 안식년 규정을 알고 이를 준수할 것을 스스로 동의하면서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직을 수락하였다고 보인다.

(3) 그렇다면 안식년 규정이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만장일치로 제정되었고, 피고 박 도 안식년 규정에 동의하여 담임목사로 위임된 이상, 안식년 규정은 피고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자치규범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 헌법에서 담임목사를 항존직으로 하면서 그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권징에 의거 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안식년 규정을 무효라고 하는 것은 피고 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소결

피고 박 이 2011. 1. 1.부터 실질적으로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직무를 수행한 것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본 안식년 규정의 도입 목적과 제정 경위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 이 실질적으로 담임목사로 시무한 2011. 1. 1.부터 만 6년이 경과한 2017. 1. 1.부터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이 시작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안식년 규정은 안식년 종료 2개월 전에 재시무투표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안식년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 박 의 재시무를 위한 당회의 결의나 공동의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박 은 안식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8. 1. 1.부터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의 자격을 상실하여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 교회가 여전히 안식년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 박

지난 6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① 서울교회는 박노철 목사가 2018. 1. 1.부터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② 박노철 목사는 2018. 1. 1.부터 서울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서울교회는 박노철 목사를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위 판결취지는

먼저, “비록 서울교회의 정관 자체에서 안식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으로서 안식년 제도를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서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정관의 개정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해당한다.”

“총회헌법 제2조는 지교회가 자신의 정치조직을 자유로 설정할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가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안식년 규정이 서울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만장일치로 제정되었고, 박노철 목사도 안식년 규정에 동의하여 담임목사로 위임된 이상,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자치규범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 헌법에서 담임목사를 항존직으로 하면서 그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

고 권징에 의거 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안식년 규정을 무효라고 하는 것은 서울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박노철 목사가 2011. 1. 1.부터 실질적으로 서울교회의 담임목사 직무를 수행하였고, 안식년 규정의 도입 목적과 제정 경위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박노철 목사가 실질적으로 담임목사로 시무한 2011. 1. 1.부터 만 6년이 경과한 2017. 1. 1.부터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이 시작 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안식년 규정은 안식년 종료 2개월 전에 재시무투표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재시무를 위한 당회의 결의나 공동의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박노철 목사는 안식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의 자격을 상실하여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더 나아가, “박노철 목사는 안식년 규정 준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식년이 시작된 2017. 1. 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예배를 주재하고 당회를 열거나 장로를 선출하는 등으로 서울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계속하여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박노철 목사는 2018. 1. 1.부터 서울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서울교회는 박노철 목사를 서울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

무를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1.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은 그 실질이 서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그 부분은 개정된 새로운 정관에 해당한다.

2. 정관에 해당하는 안식년규정은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내용으로서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3. 박노철 목사는 2017년 1월부터 실질적인 담임목회 6년이 지나 안식년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2017년 10월 재시무투표를 받지 않아 그 지위가 상실되었으므로 2018년부터는 위임(담임)목사 직무를 하면 아니되고 서울교회도 더 이상 박노철 목사를 위임(담임)목사로 인정하거나 그 직무를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한편 박노철 목사 측에서는 일부 각하된 부분을 두고 자기들이 일부 승소하였으며 위 각하부분은 박노철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를 여전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퍼뜨리고 있으나, 이 부분은 법원에서는 박노철 목사의 지위가 없다는 점을 그가 속한 단체인 서울교회에 대해서만 확인해주면 되지 굳이 박노철 목사 본인에 대하여까지 확인해 줄 필요가 없어 각하한다는 의미입니다



윤명구 집사 (교구)

5월 31일, 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이신 백경화 권사님이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계시는 당진시립합창단 음악회 Concert a Theme D'amour(사랑의 테마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2018 New Years Concert (Opera Gala Concert)에 이어 올해만 2번째이며, 작년 9월 브로드웨이 뮤지컬 & 오페레타 합창(Broadway Musical & Operetta Chorus)까지 벌써 세 번째가 되어 이제는 자칭 열성팬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진은 이미 3번째 길 인지라 이제는 당진 초임부터 산야와 건물들, 그리고 "당진 문예의 전당"이 눈에 익은 듯 합니다.

공연 Program에는 백경화 권사님에 대해 『백경화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악보 안의 감정을 표출해 내는 다양한 표현능력으로 과장되지 않는 절제미 있는 음악을 끌어내며, 음반이 없는 현대창작곡을 잘 풀어나가는 능력을 소유한 음악가』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되어 합창단, 오케스트라 단원 등 출연진이 입장하고, 지휘자인 백경화 권사님이 입장함으로 연주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이 주일1부 예배 때면 언제나 볼수 있는 온몸으로 지휘하는 백권사님의 모습을 여기 당진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당히 와 대중과 타협하지 않는 세밀함이 백권사님의 음악을 완성케 하는 모티브라고 생각됩니다.

사랑의 테마 콘서트(Concert a Theme D'amour)는 1. 생일 (Birthday Madrigal), 2. 키스Kiss (5가지 언어의 입맞춤), 3. 세레나데 (사랑의 Serenade), 4. 오월의 노래 등 4개의 테마(Theme)와 중간에 만도린(Mandorine) 연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당일 생일을 맞이한 관객들을 위한 당진시립합창단의 생일축하노래(Happy Birthday to you)가 있었는데, 관객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이 또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공연에도 금번보다 더한 노력이 즐거움과 환호와 박수로 보답되기를 기대됩니다.  
브라바(Brava)!

▶ 당진시립합창단이 연주회 도중 생일 맞은 관객들을 축하해 주는 순간

## 유아부 교사모집

현재 교회는 영아부 교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새생명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해주시는 교사를 급구합니다. 영아부 교사로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교육위원회 김혜연 집사 010-3923-9913
- 영아부 부장 이갑연 권사 010-4205-7848



### 동정

■ 개업: 14교구 최지훈 성도 한혜선 성도(최임수 집사 노인숙 권사 차남 가정) 이수커피, 동작구 동작대로 23길 10번지 1층

■ 금주의 식사: 야채 덮밥  
한인진집사 박정순권사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6월 25일(월) 새벽 5시 2018 흥해작전 중전예배를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흥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2. 7월 1일 맥추감사주일을 2018년 상반기 동안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찬에 임하는 주일로 지키게 하옵소서.

3. 우리나라에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 사라지게 하시어서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옵소서.

##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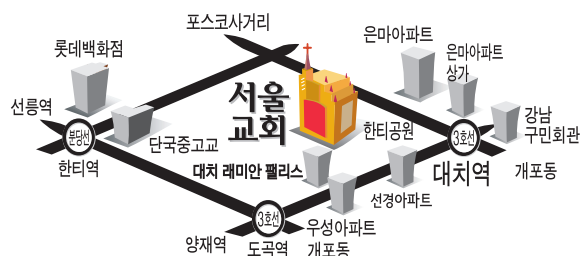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6월24일	주일	시 59-65		딤후 1-3,몬,히 1-6	
6월25일	월	시 66-69		히 7-13	
6월26일	화	시 70-73		약 1-5	
6월27일	수	시 74-77		벧전 1-5,벧후 1-3	
6월28일	목	시 78-80		요일 1-5,요이,요삼,유	
6월29일	금	시 81-86		계 1-10	
6월30일	토	시 87-89		계 11-22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